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1월 27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.26.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26.(수)	담당부서	전력계통혁신과 재생에너지보급과
담당과장	정재환 과장(044-203-3930) 문양택 과장(044-203-5380)	담 당 자	김용태 사무관(044-203-3936) 권용균 사무관(044-203-5383)

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위한 한전의 先투자 제도 마련

- 해상풍력 사업자 초기투자 부담 및 건설 리스크 완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

- 해상풍력의 적기 송전망 연계를 위한 절차와 제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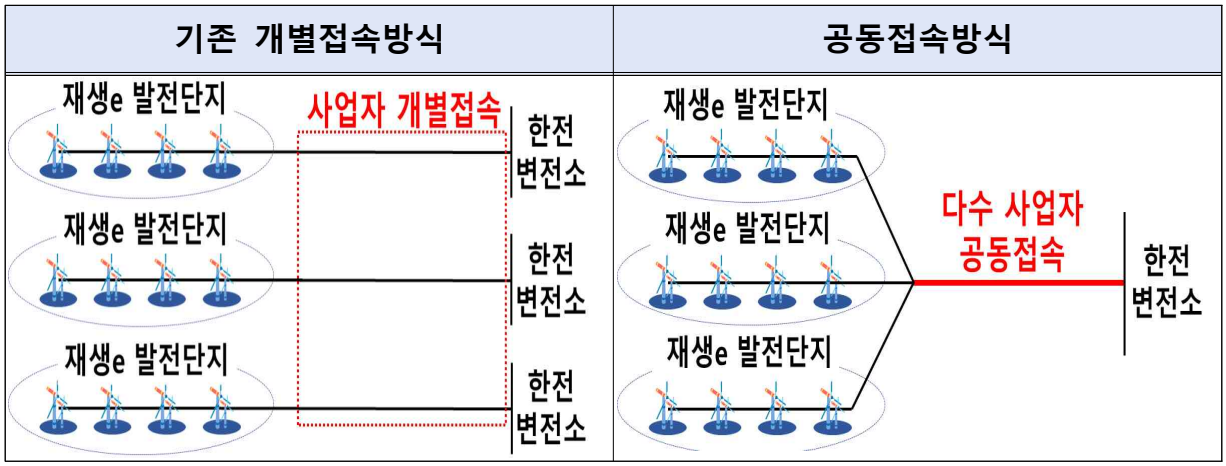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산업부)는 1월 27일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공용 송전망에 연계하는 **공동접속설비를 송전사업자**(한국전력, 이하 한전) **비용으로 건설하고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이용기간 동안 회수***하는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
* 현행 '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'에 따라 (공동)접속설비는 발전사업자 비용부담으로 건설함이 원칙이나,『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』(이하 신뢰도 고시) 개정(1.27)으로 송전사업자 선투자 근거 마련

□ 금번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선투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**발전사업자**의 **초기투자 부담 완화, 대규모 발전단지 활성화, 민간참여 확대** 등 **해상풍력 보급 촉진에 크게 기여**할 것으로 예상되며,

○ 기존의 개별적인 접속설비 구축에 따른 **국토의 난개발을 방지**하고, **전력설비 건설을 최소화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게 되어**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

[발전소 접속방식 비교]



* 공동접속설비 : 다수의 고객이 계통연계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선로

□ 공동접속설비 선투자는 건설비용의 경제성과 전력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, **발전설비용량이 2,000MW 이상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**를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되,

○ 발전설비용량이 **1,000MW를 초과**하는 해상풍력 단지에 대해서도 공동접속설비 선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**전기위원회 심의**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혀두었다

□ 현재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**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**(2.4GW)이며, **동 제도의 첫번째 수혜 사업**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아울러, **전남 신안,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등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준비 중**인 바, 실제 지정시 **대단위 해상풍력 사업**에는 동 제도가 거의 모두 적용될 전망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김용태 사무관(☎ 044-203-3936), 재생에너지보급과 권용균 사무관(☎ 044-203-538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